

장성 황룡강변에서 캠프닉... 75만명 가을 낭만 흠뻑~

〈캠핑+피크닉〉

가을꽃 축제 성료...강변 곳곳 텐트·그늘막 설치해 정취 만끽
콘서트·체육대회·백일장·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호평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장성군은 황룡강 가을꽃 축제가 나들이객 맞이까지 마무리해 모든 공식 일정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올해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온 가족이 축제장에 머물며 즐기는 '캠핑+피크닉' 콘셉트로 변화를 시도해 큰 화제를 모았다. 강변 곳곳에 텐트와 그늘막, 돛자리, 의자 등을 배치해 꽃밭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꽃나들이 캠프닉' 공간은 주무대가 있는 옛 공설 운동장 부지까지 이어졌다. 텐트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며 공연 관람하는 모습이 축제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잘 보여줬다.

축제장 및 프로그램 구성도 찬사를 받았다. 황룡강 가을꽃축제 최초로 동편에 무대를 설치하고 서쪽에 장성명가음식관을 뒀는데, 음식점 이용객과 관객의 동선이 나뉘어 혼선을 줄였으며, 축제장 어디에서건 축제를 즐길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또 주말에는 유명 가수 공연을, 평일이야 가장 한마

음 체육대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문물여장 백일장 등 지역민 행사로 꾸며 고된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아름다운 정원과 야경 역시 '명불허전'의 장관이었다.

힐링과 건너 힐링허브정원에 조성된 테마정원과 해바라기정원, 상류 방면 연꽃정원이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 축제에서 처음 선보인 용작교 경관조명과 플라워터널, 문화대교, 주무대 음악분수의 명품 야경에도 늦은 시간까지 발길이 이어졌다.

축제 이후 22일까지 운영된 나들이객 맞이도 활기찬 분위기였다.

음식점과 간단먹거리 등이 영업을 이어갔으며 주말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수상 체험이 문을 열었다.

장성군에 따르면 나들이객 맞이기간 12만여 명, 축제기간 45만여 명이 황룡강을 찾았다. 축제 직전 추석연휴 17만 6000명까지 합산하면, 지금까지 황룡강 가을 방문객은 약 75만 명 규모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참여해 주신 군민과 불철주야 축제 현장을 지킨 공직자



올해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캠프닉 콘셉트로 큰 사랑을 받았다.

〈장성군 제공〉

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전남 대표축제 4회 선정에 빛나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올해 큰 사랑 속에 마무리된 만큼, 개선·보완할 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돌봄 체계 구축' 전수조사

내년부터 통합 돌봄 시행...5849명 주거환경 등

담양군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5849명 전수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 조사'를 한다.

전수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된다.

담양군은 '담양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벌여 돌봄 관련 급여 신청이나 서비스 연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담양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통합 돌봄을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방문 보건·노인 맞춤형 돌봄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 등이다.

담양군은 지난달부터 노인 맞춤형 돌봄기관과 읍·면 보건소, 재가 요양센터 담당자 등 236명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도 욕구 조사표'를 배부해 조사 요령 교육을 했다.

조사자들에게는 가장 방문 때 대상자의 주거 환경과 보행 편의시설을 꼼꼼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를 마친 뒤 읍·면 사무소와 보건소, 향촌복지과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전수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뜻을 만드는 호도 행정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항인 향촌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장흥군 유치면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로마 요법 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장흥군 제공〉

행정복지센터, 체험교실 운영

장흥군 유치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자치사업의 하나로 '아로마 요법 힐링 체험교실'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로마 치료 체험에서는 천연 기름을 이용해 벌레 퇴치제와 통증 완화 오일을 만든다.

천연 기름을 활용한 두피 지압법을 배우고 목-

아게 스트레칭 방법도 익힌다.

유치면 행정복지센터는 이 밖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가 교실을 운영하며 주민의 근력 강화와 자세 교정도 돕고 있다.

안경아 유치면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유익한 수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본격 운영

89종 장비 갖춰...농업인 소득 증대·창업 기회 제공

함평군이 지난 8월부터 대동면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농가 소득 올리기엔 힘쓴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공장동 996.56㎡ 규모로 조성됐다.

농산물을 활용한 잼과 차, 환, 분말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

추출 농축 장비 등 모두 89종의 가공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함평군은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제품 개발과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제공한다.

또 가공 교육과 각종 인허가 상담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함평군은 가공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판로를 이끌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농업인들의 창업지원에 물론 민고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문화 공연의 향연 ... 나주축제, 흥행은 계속된다

개막 7일차 한국춤·마당극 등 역사·문화 다양한 공연 선보여

개막 7일 차를 맞은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가 후반부 들어 다채로운 무대를 열어 흥행몰이를 유지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25일 오후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연 가수 변진섭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다.

축제장에서는 영산강의 나조를 곁들인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26일에는 오후 1시 '황경하 한국춤'과 '나주 서편제 판소리 명장전' (오후 2시 30분), 전북도립국악원 '진경' (오후 4시 30분) 등 국악 무대가 분위기를 돋운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마당극 '흥어장수 문순득 표류기'가 조선 후기 실존 인물인 흥어장수 문순득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음 날 27일 오후 3시에는 '체코 세베라첵' 청소년 합창단이 나주를 찾는다. 이 합창단은 1958년 창단 이래 각종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40여 회에 달하는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반환점을 둔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 (~29일) 행사장에서 매일 오후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나주시 제공〉

같은 날 오후 6시 30분부터는 국립남도국악원의 축하 공연이 열린다. 대취타, 사물놀이, 무용, 남도민요, 기악 합주 등의 악가무를 만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축제는 2000년을 거슬러온 나주의 역사·문화, 예술을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퍼포먼스로 선보이는 문화예술축제"라며 "나주의 첫 통합축제가 모든 시민의 화합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시 찾고 싶은 나주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살기 좋은 강진으로 귀농 하세요”

군, 도시민 초청 정책설명 팸투어

강진군이 최근 수도권 도시민 및 사회 각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지도자 등을 초청해 '귀농귀촌 정책설명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강진의 귀농지원 등 인구정책 관련 유익 정책에 대한 문의가 높아지면서 가을 정취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주요 관광지와 축제 현장, 성공한 귀농인 농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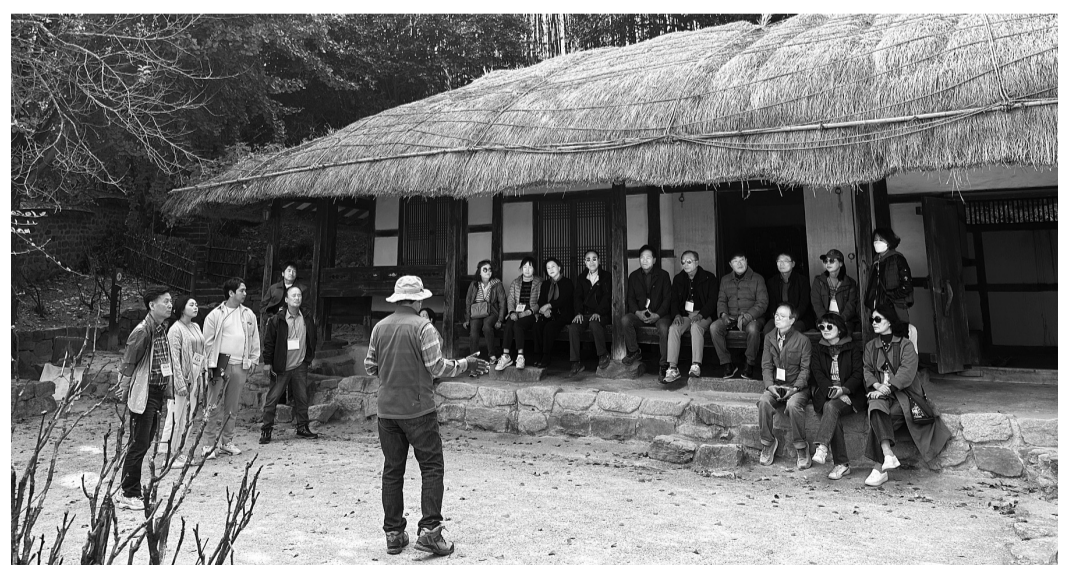
팸투어에는 서울·경기 거주 도시민과 지역 리더 등 31명이 총출는 갈대축제(강진만), 가우도, 다산초당 등 관광 핫플레이스를 둘러봤다.

귀농인 성공 정착지 3곳(표고버섯, 과수, 허브류)을 방문해 지역 먹거리를 구매하기도 했다.

군은 1박 2일 간 강진의 매력과 귀농인의 삶을 직접 체험한 내용들을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모바일 기반의 '강진군 귀농종합지원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인구정책과 귀농인 유치 관련 홍보물, 귀농 상담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최영아 강진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민에게



지난 21일 영랑생가를 찾은 팸투어 참가자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아름다운 강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강진군 제공〉

생생한 강진의 매력을 전파해 귀농·귀촌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 찾아가는 인사노무·회계·행정교육

지역업체 4곳 맞춤형 교육

강진군이 지역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기업체로 직접 찾아가 신입 직원들에

게 인사노무, 회계, 행정교육 등 업무 관련 맞춤형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기업 지원 교육이다.

최근 한기장재가복지재단행복의집과 부모사랑 재가복지센터 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방문해,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25일까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신규직원과 기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내용의 직무교육과 전문적인 회계 행정교육을 제공해 신규직원 들 및 업무 인계인수자에게 호응을 얻었다.

임성수 강진군 인구정책과장은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업무 능률을 높이고 퇴사율과 직무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